

출판사 이름도 당당하게 밝히자

책에 관련된 일을 업으로 삼고 있으면서도(오히려 그래설지도 모르지만) 휴일이면 책보다는 '책의 敵'이라고들 하는 TV 앞에 가 앉는 시간이 더 많은 것 같다. 특히 저녁나절이면 더욱 그런데, 이즈음 자주 보는 휴일저녁의 TV 프로로 '일요일 일요일밤에'라는 코미디프로가 있다. 특별한 재미라기보다는 같은 시간대의 다른 채널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나빠서인데, 기록하게도 이 프로엔 남녀 코미디언 한쌍이 매주 책 한권을 소개하는 고정코너가 끼어 있다.

여기서 소개되는 책은 물론 기본적으로는 코미디의 소재로 차용될 뿐이다. 그러나 무슨 책이 소개되는지는 어쨌든 궁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프로에서 선보인 책이 갑자기 베스트셀러가 됐다는 소식은 아직 접한 바 없지만, 가령 보다 길고 본격적인 책이야기를 내보내는 제3TV의 '저자와의 대화' 프로에서 소개되는 책에 비해 이 '일요일

밤'에서 소개된 책이 훨씬 더 많은 시청자를 일종의 잠재독자로 확보하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 현실이 개탄스럽다는 따위의 푸념을 늘어놓고 싶은 생각은 결코 없다. 그것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당연한 현실이다. 오히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는 바는 책제목과 원저자만 덜렁 밝힐 뿐 출판사 이름은 아예 생략해버리는, 어떤 한 책이 소개되고 권해지는 '방식'이다.

그런 점에서 '일요일밤'에서의 책소개가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다. 한낱 웃음을 유발하기 위해 차용된 책을 소개하는 방식과, 권할 만한 읽을거리로 책을 소개하는 방식 사이의 거리가 근본적으로 그다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지 않아서이다.

「채근담」이면 그냥 「채근담」으로 족할 뿐, 누가 번역하고 주석을 단 어느 출판사의 「채근담」이라고 밝히지 않기는 두 경우가 매한가지라는 것이다.

「논어」도 그렇고 「명심보감」도 그렇고, 심지어는 「어린왕자」나 「내 아들이 너는 인생을 이렇게 살 아라」까지 그렇다. 그러나, 특히 고전의 경우, 어떤 판본을 선택해 읽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책소개에 있어 출판사 이름을 명시해준다는 것은 바로 그같은 판본선택의 한 지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필수적인 절차이다. 물론, 인쇄매체건 전파 매체건간에 특정한 출판사 이름이 「매스컴을 탄다」는 것이 업계의 현실적인 이해관계와 아주 무관하지 않음을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 판본을 명시하지 않아 초래하게 될지도 모르는 불특정 독자다수의 불이익이 판본을 명시함으로써 얻게 되는 특출출판사의 이익을 압도한다면 그 이해관계는 사소한 것일 수밖에 없다.

출판사 이름을 밝혀준다는 사실에 대해, 그 책을 소개하는 입장이나 소개당하는 입장, 그리고 소개에서 제외된 입장 모두가 얼마간은 더 대비해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본다.

— 강철주 부장

독서퀴즈

다음문제의 정답을 1월30일까지 「출판저널」 독서퀴즈 담당자(110~190 서울 종로구 사간동 105-2 출판문화회관)로 보내주세요. 보내실 때는 문제가 실린 「출판저널」 호수를 명기하시고, 우편엽서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출판저널」 제78호(2월 20일자)에 발표됩니다. 정답을 모두 맞힌 독자 중 5명을 추첨, 민중서림에서 펴낸 「民衆愛読國語辭典」(정가10,000원)을 상품으로 드립니다.



I-1 다음 작가의 이름을 말하십시오. 러시아의 소설가이며 희곡작가. 1868년 불가장 연안의 노보고로드에서 태어나 부모를 일찍 여의고 정규교육은 거의 받지 못한채 각지를

방랑, 제정러시아의 밑바닥에서 허덕이는 사람들을 보아왔다. 처녀작 「마까르 추드라」(1892)로 인정받고 「첼카쉬」(1895)로 주목을 끌면서 코몰레코, 체홉과 사귀었으며 레닌과도 교류했다. 자전적 소설 3부작과 희곡 「밤주막」이 유명하며 미완성 서사시 「끝림 짚민의 생애」(1936) 등 많은 작품을 남겼다.

I-2 다음에 인용된 위 작가의 작품 제목을 쓰시오.

<...아들에 대한 불안과 공포로 살아왔고 몸뚱아리 하나 어떻게든 지켜나가겠다는 생각만으로 여태껏 살아왔던 그 여자는 이미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린 느낌이었다... "젊은 애들이 세계를 위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어요. 애들이 전세계 방방곡곡, 여기저기 하나도 빼놓지 않고 오직 한가지 목표를 위해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이해하게 됐어요"... 잊었던 기도소리가 되살아나 새로운 믿음에 불을 지피자, 어머니는 불꽃을 튀기듯 가슴속에서 그것들을 꼬집어내 던졌다.>

II-1 저자의 이름을 말하십시오. 오스트리아인. 1966년 비엔나대

물리학박사. 현재 미국 버클리대학교 수. 현대물리학에 담긴 사상이 동양의 고대사상과 어떤 점에서 유사한지 이론적으로 설명한 그의 저서 「현대물리학과 동양사상」(The Tao of Physics, 1975)은 「신과학」의 대표적 논저로 주목됐다. 우리나라에는 이밖에도 「탁월한 지혜」 등의 역서가 나와 있다.

II-2 아래 요약된 위 저자의 책제목 을 적으시오.

저자는 현대문명의 위기상황이 데카르트-뉴턴의 기계론적 세계관에 대한 지나친 집착에서 기인한다고 본다. 그는 분석적 환원주의적 방법의 뿌리깊은 고정관념이 박힌 기계론적 세계관에서 벗어나 우주를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로 보는 새로운 「신과학」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결국 그는 현대문명이 중대한 「전환점」에 와 있음을 진단하고 있다. (원제 「The Turning Point」)

제74회 독서퀴즈 정답

「독서퀴즈」에 응답해주신 독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74호(12월

5일자) 퀴즈에 응답해온 엽서는 모두 54통, 이중 정답지는 47통이었습니다.

당첨자 중 서울에 계신 분은 도장과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발표일자로부터 한달 이내에 「출판저널」 편집실로 직접 오셔서 상품을 받아가십시오. 지방에 계신 분께는 우송해드립니다.

- ① 東國正韻 — ③
- ② 新增類合 — ④
- ③ 訓蒙字會 — ①
- ④ 諺文志 — ②

당첨자

- 송봉익(서울시 양천구 목4동 753-11 낙원 기동 301호)
- 문모세(대구시 남구 대명10동 12 26-22)
- 장재익(충북 청주시 내덕2동 롯데 삼성아파트 D동 202호)
- 최정연(경남 밀양시 삼문동 삼문중 공아파트 101동 102호)
- 신현자(서울시 동대문구 이문2동 257-625 15동 8반)

출판저널

통권 제76호/1991년 1월 20일 발행

발행인 — 鄭鎮肅
편집인 — 李起雄
인쇄인 — 李壹秀
편집부장 — 康鐵柱
기자 — 金芝媛 鄭素淵 崔兌源 鄭惠玉 朴南貞

디자인 — 尹貞子
사진 — 全惠敬

업무차장 — 尹東鎬
업무·광고 — 李義天 崔炳天 金允淳 金攸姬

등록 1987년 6월 9일 - 다 435
대체구좌 010041-31-2826477
발행처-(재) 한국출판금고
인쇄처-평화당인쇄주식회사
전산사식-대한컴퓨터

출판저널-110-190 서울 종로구 사간동 105-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1431~3
FAX 722-1174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출판저널」 편집서평위원

- | | | | |
|-----|-----|-----|-----|
| 琴章泰 | 金光秀 | 金文煥 | 金炳翼 |
| 金錫滿 | 金聖坤 | 金彦鍾 | 金榮漢 |
| 金仁會 | 金鍾元 | 金治洙 | 金泰俊 |
| 金泰賢 | 金泰亨 | 朴明淳 | 朴星來 |
| 朴世熙 | 潘星完 | 邊衡尹 | 徐淵昊 |
| 宋相庸 | 申福龍 | 慎鍾廈 | 安秉永 |
| 安輝濤 | 梁文吉 | 吳光洙 | 柳一相 |
| 尹志寬 | 李康淑 | 李瑞薰 | 李光周 |
| 李基相 | 李斗暎 | 李萬烈 | 李炳勛 |
| 李相日 | 李勝羽 | 李元毅 | 李重漢 |
| 李姬載 | 林煥燮 | 張必和 | 張會翼 |
| 鄭丙圭 | 鄭爽鍾 | 鄭雲映 | 鄭晉錫 |
| 鄭鎮弘 | 曹大鉉 | 崔鍾善 | 韓相震 |
| 韓勝憲 | 許顯烈 | 洪廷善 | 黃鉉產 |
- (가나다순)

「출판저널」 정기구독안내

매월 5일·20일자로 발행되는 격주간 「출판저널」의 정기구독제도를 안내합니다.
*본사의 지로용지로 10,000원(10호분) 또는 18,000원(20호분)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우송해 드립니다. 정기구독 예약은 10호분 또는 20호분 단위로 신청을 받습니다.
*본사의 지로 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 수협 축협 포함)의 A지로 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와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 불입하거나 또는 우체국 대체구좌 010041-31-282 6477을 이용하십시오.

독자서평을 모집합니다

본지는 서평의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독자들이 참여하는 「독자서평」란을 두기로 했습니다. 신간중에서 감명깊게 읽은 책, 값지다고 생각되는 책을 서평의 형식으로 소개하는 글이 되겠습니다.
원고분량은 책명과 저·역자명을 포함하여 2백자 원고지 7매 내외, 투고하시는 분의 주소·성명·직업 등을 첨가하여 본사 「독자서평담당자」 앞으로 우송해 주십시오. 투고된 원고는 소정의 심사료 거쳐 본지에 게재합니다. 수록된 서평에 대해서는 게재지와 소정의 원고료를 드리겠습니다.

공급: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